

전공의 사직 시한 만료...전남대·조선대병원 '진퇴양난'

400여명 미복귀 속 수도권 쏠림 우려에 사직 인원·시점 확정도 못해 17일까지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불투명...후반기 모집 차질 불가피

정부가 못박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15일)이 경과함에 따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불리 사직인원을 확정하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자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날 정오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병원측은 아직 전공의 사직인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8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8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이들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날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직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마감 시간을 맞은 현재까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는 것이 양 병원의 설명이다.

사직인원 확정부터 사직시점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확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9월 새로운 전공의 모집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하반기 모집에서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도권 또는 일명 빅5(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 병원이 쉽게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타지역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바 '권역 제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필수 의료기관이지만 전공의 '수도권 쏠림' 우려 때문에 양 병원은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병원들은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 신청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빠른 사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직시점에 대해 정부(사직시점 6월 4일)와 대한수련병원협회(2월 29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2월 29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우리 지역 전공의 모두는 사직 처리를 2월 말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은 병원과 맺은 것인 만큼, 명령 철회가 됐다면 병원과 전공의들간에 합의를 해서 사직서를 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갈등 장기로 지역 상급병원의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대 병원은 7월 현재까지 총 800억원의 적자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버스기사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1년 6월 선고 법정구속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60대(2023년 12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의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정류장에 멈춘 광역버스에 올라 운전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올라타 3초만에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버스기사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버스기사가 버스 가는 방향을 묻는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한 데 이어 존댓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해 정당방위로 때렸다"면서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기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했을 뿐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로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면서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행,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재차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심리 종결

유동성 위기로 회생신청을 낸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심리가 종결됐다.

15일 광주지법 별관 20호실에서 파산1-1부(부장판사 조영범) 심리로 열린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심리에서 남양건설 마천호 대표이사는 "코로나와 국제 전장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을 버텨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채권자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생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생심리의 주요 쟁점은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서'(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였다.

보증서는 건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대비하는 금융도구로 'SGI서울보증'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해 보증하는 것이다.

재판부와 회생전문위원, 조사위원은 보증서 발급의 경우 예상수익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한 점을 들어 남양건설 측의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남양 측은 "기존 공사현장은 보증을 이미 마쳐 문제가 없다"면서 "신규 수주 현장의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와 컨소시엄 등 공동사업으로 수주를 해 공

동업체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생 전문위원은 "공동업체 수주의 경우 보증을 맡은 업체의 수익성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양건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이 추가로 낸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0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원회생신청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리창 깨고 2분만에 금은방 턴 여성 검거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5일 A(여·2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2분만에 5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 유리창을 벽돌과 입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진열장에서 귀금속 70여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피스를 입고 있던 A씨는 사전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후드티와 바지로 갈아입고 범행했다.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옷을 갈아입었던 장소로 돌아와 원피스로 바꿔 입었다.

금은방에는 보안장치가 있었으나 범행 당시 정상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3시간이 지난 새벽 6시 30분께 주민이 금은방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서구 농성동의 애견카페로 놀러 나온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필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집 곳곳에 숨겨놓았고 경찰은 이를 모두 회수해 금은방에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